

자동차

14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美 질주 올해 1분기 소형 SUV 시장 2위

트랙스·뷰익 앙코르 등 국내 생산 소형 SUV 강세



트레일블레이저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 속에서도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굳건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1분기에 2만5024대 판매되며, 혼다 HR-V(2만6175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1분기 미국 소형 SUV 시장 점유율은 약 10%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새시 및 파워트레인을 모두 공유하는 형제 모델인 뷰익 앙코르 GX 역시 올해 1분기 동안 1만8435대가 팔리며 5위에 올랐다. 한국지엠의 수출 효자 모델인 쉐보레 트랙스는 1만6955대가 팔리며 6위에 안착했다. 트랙스의 형제 차종인 뷰익 앙코르는 6229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처럼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뷰익 앙코르 GX와 앙코르 등 한국지엠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소형 SUV 모델들은 1분기 미국 시장에서 총 6만6643대가 판매됐다. 이는 해당 기간 중 미국 시장에서 대중 브랜드로 팔린 15개 소형 SUV 모델의 전체 판매량 중 30%를 웃도는 수치다.

미국 시장에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인기를 끌고 있는 원동력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세 가지 디자인, 준중형급에 가까운 넓은 실내 공간, 퍼포먼스와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형 파워트레인, 차급을 뛰어넘는 고급 옵션 적용 등에 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WardsAuto)가 발표한 '2020 워즈오토 10대 사용자경험 우수 차량'에도 선정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폭스바겐 신형 티록 '비와이X슬기' 화보 공개



폭스바겐코리아는 도심형 컴팩트 SUV인 신형 티록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차크닉(자+픽닉)' 콘셉트의 화보(사진)를 선보였다. 티록의 홍보대사 비와이와 슬기가 함께한 이번 화보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와 티록이 가진 다재다능함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신형 티록은 스포티함과 도시적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외관 디자인과 탄탄한 주행 성능, 차급을 뛰어넘는 넓은 실내 및 적재 공간, 뛰어난 연료 효율성 등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3000만 원대 소형 SUV 모델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5' 직접 타보니



1 아이오닉5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나메트리 픽셀 전조등을 적용한 전면부. 2 얇고 긴 후미등을 통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후면부. 3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OLE D 모니터. 4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을 활용해 즐기는 차박 캠핑.

아이오닉5 정교한 가속 곳... '1억카' 안부럽네!

(내연기관 차량)

넓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에 감탄 사각지대 없는 사이드 영상 뚜렛 즉각적 반응...편안한 주행 선사 실 전비 6.6km/kWh 상상 이상 V2L 이용한 감성 차박도 엄지척

2021년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는 원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외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잡은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 전통적인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앞다투어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와 양산형 전기차를 쏟아내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과연 현대차 아이오닉5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승을 통해 살펴보자.

●이동수단 넘어서는 플랫폼 디바이스

히든 도어캐치가 적용된 아이오닉5의 문을 열고 시승차에 앉아 시동을 거는 순간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활 플랫폼 디바이스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1억 원대를 넘어서는 아우디 e트론,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재규어 I-FACE 등을 시승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오닉5 시승차 주요 제원	
트림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
복합 전비	4.9km/kWh
추가 선택 사양	컴포트 플러스(50만 원), 파킹 어시스트(135만 원), 디지털 사이드 미러(130만 원), 비전루프(65만 원), 빌트인캠(60만 원), 실내V2L(25만 원)
시승차량 가격	5891만6197원 (기본컬러 적용 시, 세제 혜택 적용 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서울시 기준 1200만 원

이 아이오닉5에는 담겨 있다.

우선 실내 공간의 거주성이 기존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들과 조금 다르다. 앞뒤로 이동 가능한 유니버설 콘솔을 적용했는데, 콘솔을 뒤로 밀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 내는지는 경계가 없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여유로운 공간, 기대 이상으로 넓은 2열 공간 등을 체험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실내 공간에 사용된 소재도 특별하다. 로고가 없는 훈커버, 스위치, 스티어링 휠, 도어 등에는 유채꽃과 옥수수꽃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한 바이오 페인트를 사용했다. 시트 가죽은 아마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로 가공했고, 곳곳에서 여유로움을 주는 패브릭 소재는 사망수수

에서 추출한 친환경 원사를 사용했다.

새로운 소재에 감탄하면서 시동을 걸면 화이트 테마를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12.3인치 클러스터(계기판)와 같은 크기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좌우에 적용된 버추얼 사이드미러 디스플레이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운전자를 반긴다. 모두 메인 컬러로 화이트 테마를 적용해 미래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로 대체되어 OL ED 모니터가 후방 영상을 보여준다. 화질은 4K 영화를 보는 것처럼 뚜렷하고, 화각은 옆 차선은 물론 내 차선에서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가 보일 정도로 넓다. 적용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사이드미러에 존재하던 사각지대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안전성은 비교 불가다.

주행 감성도 흥미롭다. 뛰어난 개방감과 정숙성은 기본, 최고출력 217마력, 제로백 5.2초의 성능을 지닌 전기모터가 만들어내는 즉각적인 반응과 정교한 가속감은 1억 원대 고성능 내연기관차를 머쓱하게 만든다. 아이오닉5와 같은 전기차를 타다가 내려서 디젤차를 타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고, 뒤에서 누군가 잡아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전기차의 주행 감성에 한 번 익숙해지면 내연기관차를 타기 힘들어진다.

●V2L로 즐기는 감성 차박, 뛰어난 전비

중간 가격대인 글램핑장에서는 아이오닉5의 V2L 기능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아이오닉을 통해 가장 즐기고 싶어하는 감성 차박 캠핑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V2L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아이오닉5는 그 자체로 이동하는 초대용량 보조 배터리다.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해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야외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가 생활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시승차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 모델로 공인 전비는 4.9km/kWh인데, 왕복 80km 구간에서 교통 흐름과 제한 속도를 지키며 기록한 실 주행 전비는 6.6km/kWh였다.

공인된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복합 기준 401km지만 실 주행 전비를 보면, 한 번 충전으로 편도 450km인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시승차의 경우 컴포트 플러스(50만 원), 파킹 어시스트(135만 원), 디지털 사이드 미러(130만 원), 비전루프(65만 원), 빌트인캠(60만 원), 실내V2L(25만 원) 등의 풍성한 추가 옵션을 장착하고 있어 차량 가격은 5891만6197원(기본 컬러 기준)이다. 올해 서울 기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200만 원으로 시승차의 경우 4691만6197원에 구매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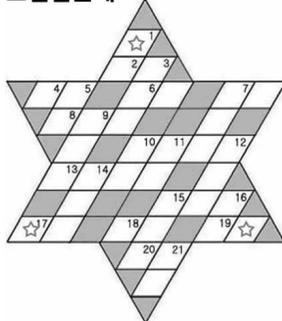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8	6					
	2	1			5	6		
	6		4		1		8	
2	5			7			4	9
		6			2			
9	4			6			7	5
	3		7		4		2	
	1	2			3	9		
			3	2				

■ 스토쿠정답

9	5	7	2	1	8	6	8	4
2	6	8	9	5	8	9	2	1
1	2	8	7	6	2	5	8	9
5	2	1	8	9	2	8	7	6
8	8	2	6	7	9	9	2	1
6	7	9	8	2	1	8	5	2
2	8	6	1	5	7	2	9	8
7	9	5	2	8	6	1	2	8
8	1	2	9	2	8	7	6	9
9	7	8	6	8	1	9	2	2
2	2	8	7	9	9	8	6	1
5	1	6	2	8	2	8	9	7
2	2	5	8	6	9	7	1	8
8	9	1	2	7	2	6	8	9
8	6	7	1	8	2	2	9	1
7	9	2	9	2	8	1	8	6
6	8	2	1	2	7	9	5	8
1	8	9	8	5	6	2	7	2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1. 어떤 방면으로 활동 범위가 세력을 넓혀 나아감. 03.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오고오' 05. 여자가 화장할 때 입술·뺨에 바르는 홍색 안료. 07.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

곡조를 맞추어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는 소리. 10.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아랫사람에게 전함. 13. 아랫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15. 짝이나 미투리의 허리 양쪽에 엄지총을 당기어 맨 굵은 총. 17.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18. 음악에 맞는 춤을 만드는 일. 19.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20. 뜻을 두어 바람. 또는 그 뜻.

■ 세로열쇠

01. 어떤 방면으로 활동 범위가 세력을 넓혀 나아감. 03.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오고오' 05. 여자가 화장할 때 입술·뺨에 바르는 홍색 안료. 07.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

칭 아래. 09. 한대에 장작을 모아 질러 놓은 불. '오롯오' 10. 위와 아래를 아울러 이르는 말. 11. 의심스럽게 생각함. 12. 답을 짐작하는 일. 14. 손윗사람에 대한 사랑. 15. 달을 짐작하는 일. 16.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 21. 고향을 그리워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면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